

제2장 죽음에 대한 이해

1. 죽음의 정의

죽음은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에서 결국에 일어나는 생명의 과정이 총체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죽음의 정확한 정의는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와 철학에 따라서 다르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죽음은 이상하게 인기 있는 화제가 되어 왔다. 이전에 죽음은 크게 피하는 주제이었다. 죽음은 생물학적 연구에서 무시되어 졌었고 의사들의 사역 너머에 있었고 의학에서는 부적절한 주제로 생각되어 졌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죽음에 대한 연구가 큰 관심이 되어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세대 전보다 이 죽음을 민감하지 않게 공개적으로 토론한다. 죽음은 더 이상 타부로 싸여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죽음의 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접근과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호기심 등은 우리 문화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오늘날은 사망학(Thanatology)이라고 하는 죽음을 연구하는 학문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아직은 의학도 법도 죽음을 정의하는데 당황해함으로 모두가 철학자와 같이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판단력은 죽음조차도 단정할 수 없을 만큼 불명확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의 정의에 대한 도전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다.

죽음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철학적인 정의와 의학적인 정의 그리고 성경적 정의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철학적 정의

철학적인 정의는 주로 사람들의 한계에 관해서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관점이다. 죽음은 인생의 여정 끝에 있는 환영되어지지 않는 사실이다. 죽음에 대한 정의는 철학의 가장 큰 시험 중의 하나다. 모든 철학자들은 이 죽음에 대하여 그 철학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정의가 그 철학이 주장하는 진리에 관하여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여 주고 있으며 그 철학의 성격을 아주 잘 말하여 주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시험대다.

헬라 철학에서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영이 육체에 갇혀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으로 환영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죽음은 사람을 화나게 한다. 죽음은 불공평하다. 죽음은 사람의 모든 소망을 억눌러버린다. 죽음은 꿈을 파괴한다. 그러나 죽음은 또한 해방이다. 돌봄으로부터 필요로부터 인생의 미친것으로부터 해방이다. 죽음은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검은 그림자로 덮어버린다 라고 말한다.

물질주의 철학에서는 우리들의 생명을 그저 한 덩어리의 생화학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의 모임으로 본다.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저 우연히 생성되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으로 본다. 인생은 단순히 녹는다. 그리고 거기에는 더 이상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 이것이 물질주의자들과 막스 주의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생이다. 악과 죄로 썩어져있는 이 세상이 사람을 위해서 계획된 모든 것이라는 사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생의 개념은 역사의 기록이 있는 지 7000년이 지난 후에 겨우 나타나는 개념이다. 모든 원시사회와 모든 고대문명은 죽은 후의 삶에 대한 정교한 믿음들이 있다. 고대인들은 죽음후의 삶을 확신하고 무덤 속에 죽음 후의 삶을 믿는 문화적인 단서를 묻어놓았었다.

2) 의학적 정의

의료인은 죽음을 현미경 밑에 갖다 놓는다. 의료인은 죽음으로부터 모든 두려움과 모든 인격적인 것을 박탈한다. 이들 의학적인 정의들 중에 어떤 것들은 사람에게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점과 아주 반대가 된다. 의학적인 정의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뇌사개념이다. 이 뇌사는 인간의 죽음의 순간과 그 후의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의학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한 기능도 없고 신학적인 기능도 없다. 단순히 의학적인 기능이 있을 뿐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이 뇌사의 개념을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 뇌사는 원초적인 뇌 활동과 인격적인 뇌 활동 사이를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근거를 결정한다. 원초적인 뇌는 사람의 생물학적인 기능을 정규적으로 하게 한다. 대뇌피질(정신적인 뇌)은 의식을 일으키고 관계와 인격에 관한 모든 표현을 일으킨다. 이 피질의 파괴 혹은 정신적 뇌의 파괴로 비록 유기적인 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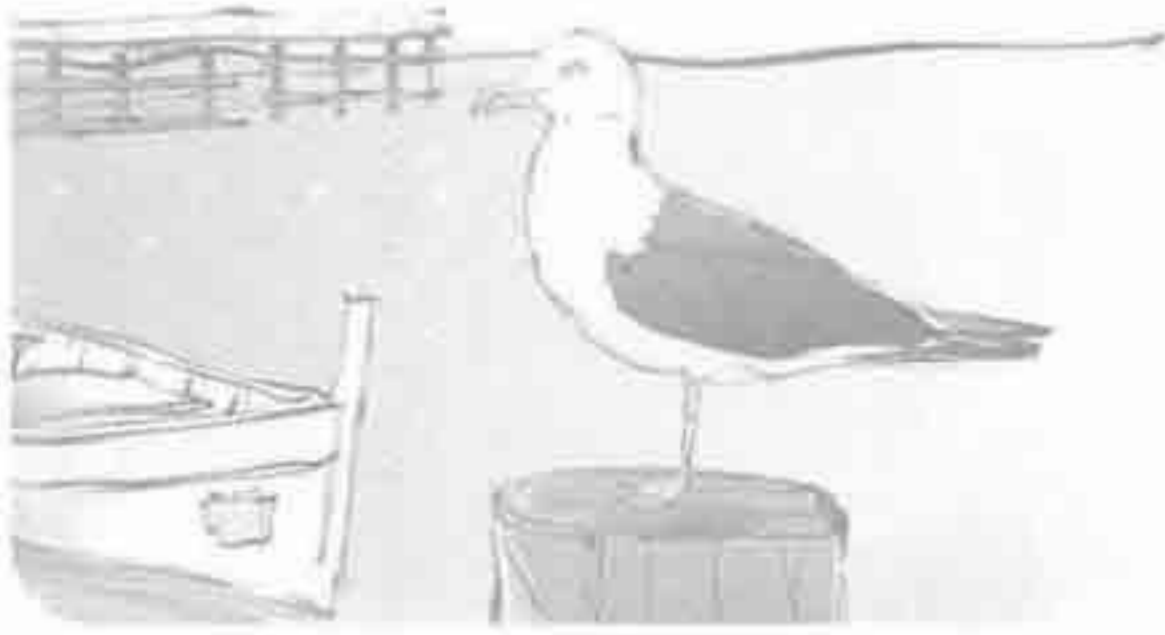
학적 생명이 유지된다 할지라도 사람은 죽은 것이다.

현대의학과 기독교적인 가르침 둘 다 완전한 뇌사를 주장한다. 모든 뇌 활동이 완전히 정지되었어야만 죽음으로 인정한다. 전적인 뇌사는 인간죽음에 대한 소위 UDDA(Uniform Determination of Death Act)라고 불려지는 기준을 따라 결정되어진 것이다. 이 뇌사의 개념은 인체의 기관들이 아직 건강하고 활동하는 동안 그 기관의 이식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UDDA는 순환기와 호흡기 기능들의 돌이킬 수 없는 정지 혹은 뇌 기관을 포함한 전 뇌의 모든 기능의 돌이킬 수 없는 정지를 유지하는 사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한다.

3) 성경적 정의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신학은 분명하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직면하는 보편적인 숙명이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생물학적인 인간생명의 정상적인 끝으로 직면한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생물학적인 인간의 죽음은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창2:16,17)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지시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저주를 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바로 죽지 않았다.



제2장 죽음에 대한 이해

그러나 그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바로 죽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즉각적으로 죄책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경험했을 때 영적으로 죽었다(창3:7,8). 그들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죽었다. 왜냐하면 건강과 생명은 하나님과의 교통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생명이다. 육체적인 죽음은 그들이 서서히 죽어지는 한 과정이 된다.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은 그 원인으로서 죄와 그 결과로서 죽음을 연결시켜야만 한다. 바울은 이 연합을 분명하게 한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쏘는 것은 죄요 (고전15:56) 라고 말하였다.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 가지의 정의를 하고 있다. 첫째는 육체적 죽음(창23:2, 50:26, 요8:53)이다. 둘째는 두 번째 죽음 혹은 영원한 죽음(계2:11, 20:14)이다. 육체적인 죽음은 영과 육이 서로 분리되는 것이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적인 분리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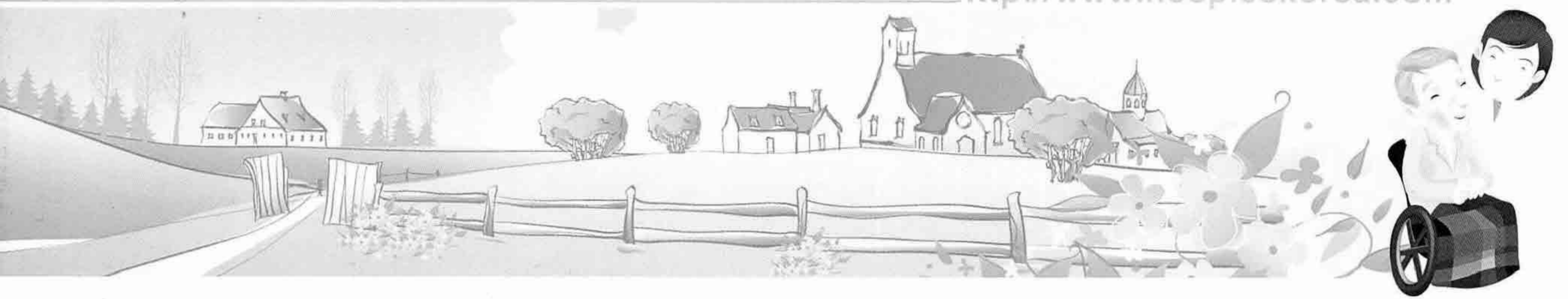
육체적인 죽음 때문에 오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은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리고 몸으로부터 영혼의 분리는 첫 번째 육체적인 죽음을 가지고 온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분리의 표식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자연적으로 쏘크라테스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친구가 아니고 대적(고전15:26)이고 공포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죽음의 공포는 비록 죽는 불 유쾌감은 남아 있을지라도

사라졌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죽음을 통과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종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그들을 위하여 다음 세상에 예비해 놓으신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살아 계신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죽음을 예수님과 만날 약속으로서 봐야만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1:21절과 23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였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고후5:8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몸을 떠나 있는 것은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죽었을 때 믿는 사람들의 영혼들은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어지고 하늘나라의 예배하는 삶 속으로 들어간다(히12:22-24).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영화롭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위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들의 육체가 변화하는 순간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해질 것이다(고전15:51-54).

죽으면 바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둘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죽었을 때와 부활할 때 사이에는 무의식적인 세계에 가있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계에 있는 의식적인 즐거움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눅16:22, 23:43, 빌1:23, 고후5:8, 계6:9-11, 14:13).



죽음은 인간의 운명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다. 죽음 후에는 믿지 않은 자의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눅16:26). 그때서부터 경건한 사람과 불경건한 사람 모두가 그들이 이생에서 심은 것들을 거두어들인다(갈6:7-8).

믿는 사람들은 죽음 후에 그리스도에게 더욱 가까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얻는 것이다. 그러나 영혼이 육체로부터 이탈하는 것은 얻는 것이 아니다. 몸은 표현과 경험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몸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경험도 표현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죽는 것은 정말로 빈궁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벗는 것보다는 부활한 몸으로 덧입기를 원한다는 것이다(고후 5:4). 하늘의 생명으로 부활되어지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다.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는 중간상태의 삶은 이 삶 앞에 있는 세상에서의 삶보다 낫다. 그러나 부활의 삶은 더 좋을 것이다. 사실 부활의 삶은 최고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시다(고후5:4-5 빌3: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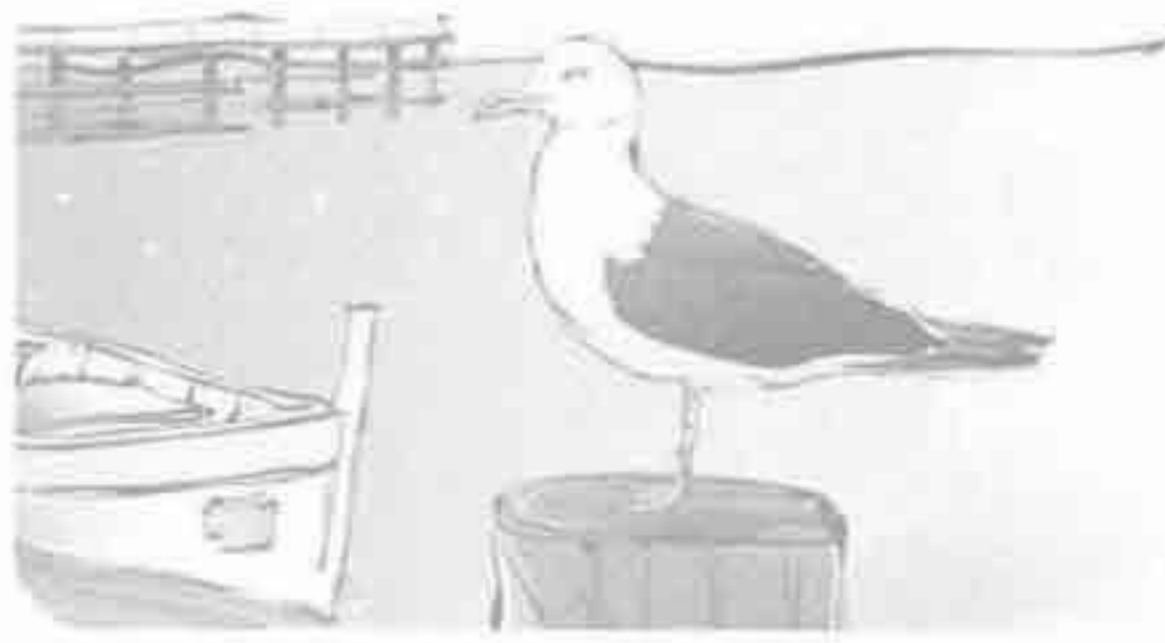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신다(행26:23). 그리고 예수님께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은 그분의 종들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고전15:20-23, 빌3:20-21). 이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온 인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위해서 일으켜 세워질

것이다(요5:29).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놀라운 변화를 할 것이다(고전15:50-54). 한편 예수님께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러운 몸을 다시 입게 될 것이다(고후5:1-5).

지금 우리들이 입고 있는 이 죽을 몸과 부활 때에 입을 죽지 않을 몸은 전혀 다른 몸이 아니라 이 두 몸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 있으셨던 경우와 같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께서서 다시 사셨을 때의 그 몸은 예수님께서서 돌아가실 때에 가지고 계셨던 그 몸이었다.

사도 바울은 부활된 몸과 죽어야 할 몸 사이의 관계를 씨와 거기서부터 나오는 식물에 비해서 말하였다. 씨와 그 씨로부터 나오는 식물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는 것이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비교는 일종의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출발점과 거기서 나오는 마지막 생산물 사이에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즉 씨와 여기서 나오는 식물 사이에는 크게 다르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연속되는 것이 있다.

또한 바울은 말하기를 이 두 몸 사이에는 질적으로 대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들의 현재의 몸은 아담과 같은 것이고 자연적인 것이고 지상적인 것이다. 모두 연약함과 부패에 복종되어 있고 그저 존속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들의 부활된 몸은 예수그리스도와 같은 몸이며



제2장 죽음에 대한 이해

영적인 몸일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늘나라의 계열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그 부활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해 큰 변화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다시 몸을 입은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상에서 나타났을 때에도 제자들은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인 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유대 땅에 죽었던 성도들이 무덤으로부터 다시 몸을 입고 일어났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되었다(마27:52-53). 그러므로 부활 때에 이렇게 다시 산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서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저 세상에서 우리들은 우리들이 사랑했었고 또 죽었기 때문에 잃어 버렸었던 신자들과 즐거운 재회가 예상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살전4:13-18에 기록된 것이다. 이 구절이 쓰여 질 당시 그리스도안에서 살아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때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그리스도인들을 결국 잃어 버릴까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쓰여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한번 더 볼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하여 이것을 썼다.

예수님의 순수한 사랑과 겸손이 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할 모범인 것과 같이 예수님의 영화롭게 된 몸은 우리들의 몸이 새롭게 되어졌을 때 우리들이 닮을 새 몸의 모범이다(빌3:21). 그리스

도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은 다시 태어난 가슴이 원하는 것을 그리고 그 가슴의 목적을 표현하기에는 가장 나쁜 도구이다. 그러나 부활에서 우리들이 입을 새 몸은 새로 태어난 완전한 우리의 성품과 완전하게 조화되는 몸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거룩한 자기표현을 위하여 영원히 완전한 도구인 것이 증명될 것이다.

중략...

예수님과 바울은 죽은 후에 인간이 살아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 이상으로 계속해서 존재할 부활의 생명의 새로운 형태라는 것을 확실히 한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시간과 공간 저쪽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영원한 존재의 그 차원을 전혀 부정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중요한 부분이라면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생각을 고쳐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의로운 사람에게 진리일 뿐 아니라 뛰어난 예가 된다.

사람의 부활될 부분은 영혼이 아니라 육체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다.

이 원고는 호스피스자원봉사자 교육교재인 호스피스총론에서 발췌된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